

TRANS- HUMANITIES

Title : 근세 한국과 일본의 역사 기록 비교

**Comparative Study of Historical Records and Document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Pre-modern Period**

Author(s) : 김현영 (KIM Hyun-Young)

Source : *Trans-Humanities*, Vol. 5 No. 2 (2012), pp. 31-58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W WOMANS UNIVERSITY

근세 한국과 일본의 역사 기록 비교

김현영

1. 머리말

본 논문은 조선시대의 역사 기록의 생산과 관리의 문제를 일본 에도시대의 그것과 비교하여 조선시대 역사 기록의 생산과 관리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작성되었다. 조선시대의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각종 의궤 등은 조선시대 기록 문화의 정수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이러한 전통적 기록 문화가 다른 나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우리만의 독자적인 것인가 하는 데에 있어서는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문화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전근대 기록 문화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전근대 기록 문화 차원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에도시대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기록 문화의 비교를 시도해보고자 작성되었다.

사실상 중국의 명, 청 왕조의 기록 문화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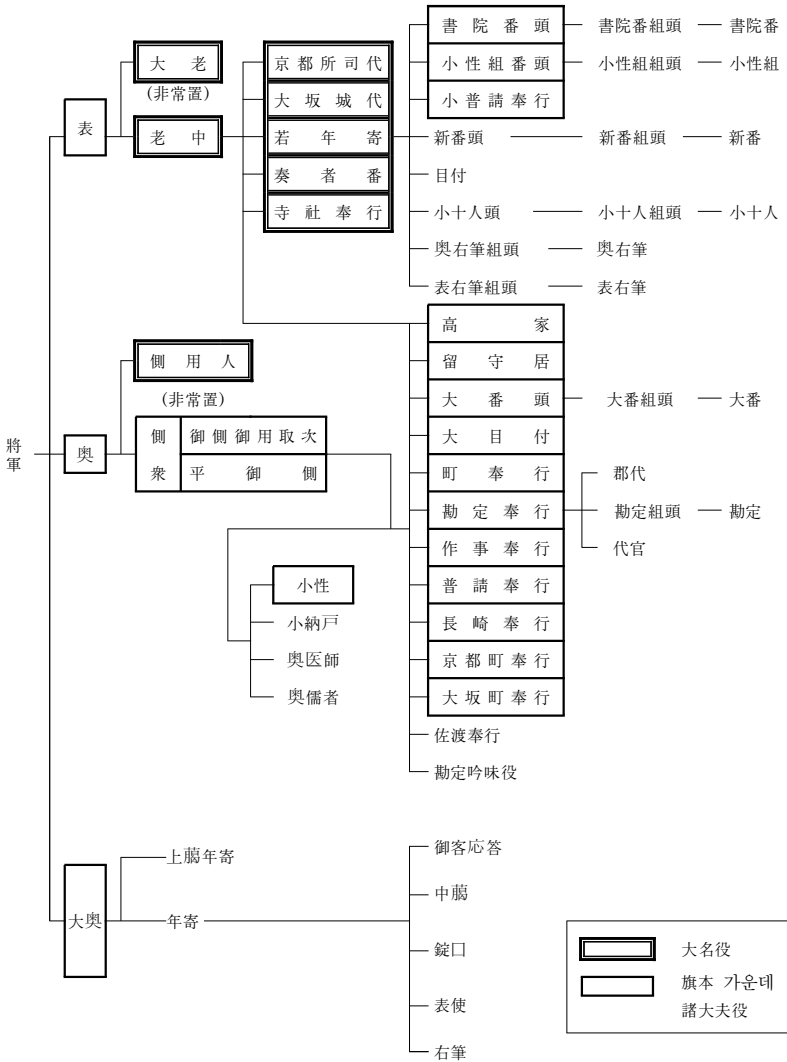
을 비교하는 것은 그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에도시대의 정치 체제는 조선시대의 그것과는 너무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왕을 일본의 쇼군(將軍)에 비교하고 에도막부의 정치제도를 이해하여 그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접근을 함으로서 비교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먼저 우리 기록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에 대응하는 에도막부의 기록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9세기 전반에 각 역대 장군의 기록을 편찬한 『도쿠가와 실기』(徳川實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승정원일기에 비교할 수 있는 에도막부의 기록은 『유히츠쇼일기』(右筆所日記)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나아가 의궤(儀軌)나 의주(儀註) 등과 같은 전례(典禮) 기록은 에도막부의 전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소사반일기』(奏者番日記)나 『소사반 테도메』(奏者番手留)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도쿠가와 실기』, 『유히츠쇼일기』, 『소사반 일기』, 『소사반 테도메』를 소개하면서 두 체제의 기록 문화를 비교해보려고 한다.

2. 에도 막부의 직제

조선시대의 역사 기록과 일본 에도시대의 역사 기록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도 막부의 직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¹⁾ 에도 막부의 직제는 다이묘(大名), 하타모토(旗本), 고케닌(御家人) 등 세 개의 계층으로 나뉘어 있었다. 다이묘는 1만 석(石) 이상의 영지(領地)를 부여받은 계층이고, 하타모토는 1만 석 미만으로 오메미에(御目見え) 이상의 계

1) 에도 막부의 직제에 대해서는 深井雅海의 『江戸城---本丸御殿と幕府政治』(東京: 中央公論新社, 2008)를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표 1〉 에도막부의 직제(深海雅海の 『江戸城』
 (2008년, 東京 : 中央公論新社)에서 재인용)

층이며 고케닌은 1만 석 미만으로 오메미에 이하의 계층을 말한다. 에도 중기 이후의 각 계층의 인수는 다이묘가 약 260인, 하타모토가 약 5,200인, 고케닌이 약 17,000~18,000인이다. 에도 막부의 직제에는 이들 각 계층의 사람들 중에서 적절한 사람이 그 직에 나아가게 된다.

먼저 다이묘가 맡는 직책부터 보기로 한다. 에도 막부의 장관은 로쥬(老中)이다. 다이로(大老)는 막부 최고의 역직(役職)이지만 상설은 아니고 형식적으로 두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에도를 포함하여 3도(都)라고 불리는 교토(京都)·오사카(大坂)에는 교토 쇼시다이(京都所司代), 오사카 죠다이(大坂城代)가 설치되어 있다. 쇼시다이(所司代)는 조정(朝廷: 皇家) 및 서국(西國) 다이묘(大名)에 대한 감찰을 주 임무로 하고, 관위는 시종(侍從)이며 로쥬에 다음가는 중요직이다. 죠다이는 오사카성(大坂城)의 수위(守衛)를 맡는 것 이외에도 오사카에 근무하는 막부 여러 역인(役人)을 통할하는데, 4품(중4위 하)으로 서임되었다. 와카도시요리(若年寄)는 부장관(副長官), 소사반(奏者番)은 성중(城中)의 의례, 다이묘나 하타모토의 알현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하타모토 역(役)은 로쥬 지배와 와카도시요리(若年寄) 지배로 나뉘어, 직무상으로는 무관(=番方)과 행정관(=役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관에는 고쇼구미(小性組), 서원번(書院番), 신번(新番), 대번(大番), 고쥬닌(小十人) 등 5번방(番方)이 있고 각각 번두(番頭)가 통솔하여 장군의 경호나 에도성의 경위 등을 담당하였다.

행정관의 중심은 지사 부교(寺社奉行: 大名役), 마치 부교(町奉行), 간쥬 부교(勘定奉行) 등 3부교(奉行)이다. 지사 부교는 전국 사사(寺社)의 관리와 종교 통제, 마치 부교는 에도의 정지(町地)의 지배, 간쥬 부교는 막부 직할령의 지배와 재정 운영을 각각 담당하였다. 3부교(奉行)가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로쥬로부터 자문을 받는 직무도 있었다.

한편 막부직할지의 요지에는 각각 행정을 담당하는 나가사키 부교(長崎奉行), 교토마치 부교(京都町奉行), 오사카쥬 부교(大坂町奉行), 사

도 부교(佐渡奉行) 등 원국 부교(遠國奉行)가 설치되어 있었다. 고케(高家)는 조정과의 의식, 전례를 담당하고, 루수이(留守居)는 오오쿠(大奥)의 단속 감독을 맡았다. 오쿠 유헌즈(奥右筆)는 로쥬, 와카도시요리의 정무보좌관, 오모테 유헌즈(表右筆)는 기록 담당이다. 기타 사쿠지 부교(作事奉行), 후싱 부교(普請奉行), 고후싱 부교(小普請奉行) 등 하위 3부교는 축성(築城), 전사(殿舎) 건축, 상수(上水) 관리 등을 담당하고, 오메츠키(大目付), 메츠키(目付)는 다이묘, 하타모토의 감찰, 법령 전달 등에 종사하였다.

이상이 이른바 오모테(表)에서 막부의 행정을 담당하는 역할들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군이 주로 정무를 보는 곳은 오쿠(奥)이다. 따라서 오쿠의 역직(役職)도 에도시대의 기록 문화를 이해하는데 빠트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오쿠의 장관은 보통 소비슈(側衆)가 한다. 소비슈는 교호기(享保期: 1716-1736)에 오소바 고타도리츠키(御側御用取次)와 히라오소바(平御側)로 나뉘어서 전자는 미결의 안건, 후자는 기결의 안건을 장군에게 전달하는 것을 직무로 하였다. 소비요닌(側用人)은 다이묘 역의 쇼군(將軍) 측근 최고직이지만, 교호기 이후에는 비상치(非常置) 직이 되고, 형식적으로 두어지는 것도 있었다. 고쇼(小姓), 고난도(小納戸)는 장군의 신변 돌보미역, 오쿠의사(奥醫師)는 시의(侍醫), 오쿠유자(奥儒者)는 시강(侍講)이다. 『도쿠가와 실기』를 편찬하도록 건의한 하야시 줯사이(林述齋)는 쇼군의 시강이었다.

한편 장군의 부인들과 장군의 가정생활 영역은 에도성의 오오쿠(大奥)에 해당하는 곳이다. 오오쿠에 근무하는 온나츄(女中) 직은 하타모토, 고케닌(御家人), 배신(陪臣), 하쿠쇼(百姓), 죠닌(町人) 등의 딸에서 채용되었다. 온나츄 직에서 제일의 권력지는 장군 부속의 도시요리(年寄, 老女)이다. 죠로 도시요리(上臈年寄)는 온나츄직의 최고위이지만 장군이나 미다이도코로(御台所: 장군의 처)의 차토우(茶湯: 佛前이나

靈前に 올리는 차), 꽃꽂이 등의 상담역으로 권력은 그다지 없었다. 손님 응대는 고산케(御三家), 고산쿄(御三卿), 쇼다이묘(諸大名) 등으로 부터의 온나츠가이(女使)의 접대역, 쥬로(中臈)는 장군이나 오다이도쿄로(御台所)의 신변 돌보미역, 가기구치(錠口)는 오쿠와 오오쿠와의 경계에 있는 ‘가기구치’를 관장하여 오쿠와의 연락역을 맡았다. 오모테 츠카이(表使)는 오오쿠에서 사용하는 물품 일체의 매입을 관장하고, 유히츠(右筆)는 도시요리(年寄) 부속의 기록 담당이다.

2. 『도쿠가와 실기』와 『조선왕조실록』

『도쿠가와 실기』(이하 ‘실기’로 약함)는 19세기 전반에 편찬된 에도 막부의 공식 기록이다. 정확히 말하면, 역대 쇼군(將軍)의 시호(諡號)를 접두어로 하고 각각의 장군에 관한 기록을 『도쇼구 고짓기』(東照宮御實紀), 『다이도쿠인도노 고짓기』(台德院殿御實紀) 등으로 칭하였다. 『도쿠가와 실기』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하나로 한 통칭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로부터 10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하루(德川家治: 天明期,



〈그림1〉 하야시 줯사이

1786년)까지의 사상(事象)을 날짜순으로 기술하고 있다. 각각의 기록은 역대 장군 재임 시에 일어난 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본편(本編)과 그 쇼군과 관련된 일화를 모은 부록으로 되어 있다. 분카(文化) 6년(1809)에 기고(起稿)하여, 가에이(嘉永) 2년(1849) 12대 도쿠가와 이에요시(德川家慶)에게 헌정되었다.

편찬은 하야시 줯사이(林述齋, 1768-

1841)의 발의로 나루시마 모토나오(成島司直, 柳北의 祖父) 등이 담당하여 완성하였다. 실기에는 각각 기사의 출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에도시대를 아는 기본 사료가 되고 있다.

〈표 2〉 『도쿠가와 실기』의 내용과 책수

| 책명 | 쇼군 | 본편 | 부록 | 비고 |
|----------|------|-----|-------|-------------------------|
| 成書例·總目錄 | | 1 | | |
| 東照宮御實紀 | 德川家康 | 10 | 25 | 덴분(天文)19년~고지(弘治) 원년은 빠짐 |
| 台德院殿御實紀 | 德川秀忠 | 60 | 5 | |
| 大猷院殿御實紀 | 德川家光 | 80 | 6 | |
| 嚴有院殿御實紀 | 德川家綱 | 60 | 2 | |
| 常憲院殿御實紀 | 德川綱吉 | 59 | 3 | |
| 文昭院殿御實紀 | 德川家宣 | 15 | 2 | |
| 有章院殿御實紀 | 德川家繼 | 15 | 1 | |
| 有德院殿御實紀 | 德川吉宗 | 62 | 20 | |
| 惇信院殿御實紀 | 德川家重 | 31 | 1 | |
| 浚明院殿御實紀 | 德川家治 | 55 | 3 | |
| 이상 德川實紀 | | 448 | 68 | (합계 515권) |
| 文恭院殿御實紀 | 德川家齊 | 72 | 5 | 68~70권 빠짐 |
| 愼德院殿御實紀 | 德川家慶 | 17 | 0 | |
| 溫恭院殿御實紀 | 德川家定 | 6 | 0 | |
| 昭德院殿御實紀 | 德川家茂 | 8 | 次記 3권 | |
| 慶喜公御實紀 | 德川慶喜 | 3 | 0 | |
| 이상 續德川實紀 | | 106 | 8 | (합계 114권) |

실기의 기사는 막부의 일기를 기초로 하여 기술되어 있지만 메이레키(明曆)의 대화재로 각종 사료가 소실되는 등, 막부를 개창한 이후부터 실기의 편찬이 개시되기까지의 오랜 기간에 산일(散逸)이 보인다. 일기가 결락(缺落)된 기간은 다른 사료를 모아서 기재하였다는 취지가 편자

의 주(註)로 기록되어 있다.

나루시마 가(成島家, 司直·良讓·柳北 3대)는 실기 편찬을 계속하여(『續德川實紀』), 메이지(明治) 원년(1868)까지를 기술하고 끝내고 있다. 편찬 당초에는 『고깃기』(御實紀)라고 칭하고 있었지만, 메이지시대에 활자본으로 간행할 때에 『도쿠가와 실기』(德川實紀)라고 하는 총칭이 사용되어, 그 이후 이 총칭이 일반적으로 되었다.

『도쿠가와 실기』의 편찬 범례(「御實紀成書例」)는 총 37조로 되어 있는데, 그 편찬의 체례(體例)는 일본 고대의 분도쿠 삼대 실록(文德三代實錄)을 기본으로 하고, 중국의 당(唐) 순종실록(順宗實錄)과 명칭 실록(明清實錄)을 가지고 표준으로 한다고 첫 조항에 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 쇼군의 유년(幼年)부터 재능과 덕망, 승진 등을 대사(大事)와 소사(小事)로 나누어 편년체로 편찬하고, 장군과 관련된 가언(嘉言)이나 선행, 구전(口傳) 등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처리하여 정리하였다.

실기가 편찬되는 과정을 보면, ①200여 년이 지난 과거 역대 장군들의 역사를 기존의 사료를 중심으로 하여 재편찬 되었다는 것, ②따라서 『도쿠가와 실기』는 실록의 편찬에서 보는 것처럼 실록 편찬을 위한 체제가 갖추어졌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 주목된다. 즉 『조선왕조실록』이 실록을 편찬하기 위하여 사관을 두고 사관을 중심으로 『시정기』(時政記)와 사초(史草)를 생산해두었다가 국왕이 죽으면 바로 실록청을 설치하여 전왕(前王)의 『시정기』와 사초를 중심으로 실록을 편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지만, 막부(幕府)의 제도에서는 사관 제도와 같은 당대사 편찬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실록을 편찬하기 위한 체제가 갖추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는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체제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쿠가와 실기』를 편찬할 때에 참고한 서목(書目)을 보면 각 부서마다 기록 관리 체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기의 편찬에 참고하였던 기록류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막부 후기인 분카(文化)

6년부터 텐포기(天保期)에 걸쳐서 작성된 실기의 편찬 과정에 사용되었던 막부기록류, 특히 이에미즈(家光) 정권기(寬永 9년-慶安 4년 3월)의 막부 『유히츠쇼 일기』와 『기이기』(紀伊記), 『오와리기』(尾張記), 『미토기』(水戶記)등 고산케(御三家)의 기록, 『오소바일기』(御側日記), 『쇼케이쇼메이키』(正慶承明記) 등이 인용되고 있다. 특히 막부 쇼모츠가타(書物方)에 있던 간에이(寬永) 8년부터 겐로쿠(元祿) 12년(도중 承應 원년부터 明曆 2년분 결락)까지의 『유히츠쇼 일기』가 주요 인용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²⁾

실기 편찬의 고본 작성 과정에서 먼저 중심 자료가 된 것은 이에즈나(家綱) 초기의 부분에 대해서는 게이안(慶安) 4년분이 『유히츠쇼 일기』, 쇼오(承應) 원년부터 3년분이 『미토기』를 중심으로 『기이기』, 『오와리기』 등 고산케 관계 일기, 메이레키(明曆) 원년 이후는 막부 일기이지만, 메이레키 3년 이후에 대해서는 『유히츠쇼 일기』도 대조하면서 보충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텐츄오사타가키』(殿中御沙汰書)가 또한 실기의 편찬에 중요 자료로 인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텐츄오사타가키』란 에도시대 후기에는 매일 에도성 내에서의 가이쥬(廻狀) 등의 형식으로 회람된 의례나 임면, 면알(面謁), 상벌 등에 관한 정보(御沙汰)를 각 부서나 방주(坊主) 등이 실무상의 필요에서 써둔 것이다. 『텐츄오사타가키』와 막부일기와의 관계가 검토될 필요도 있다.(『텐츄오사타가키』는 말하자면 조선 시대의 조보류를 등록한 자료에 비교할 수 있겠다.)

물론 실기의 편찬에는 또한 각 가의 가사(家史)나 법령집, 기타 기록들도 물론 참고하였겠지만, 『(고요베야) 일기』(御用部屋日記), 『유히츠쇼 일기』, 『오와리기』, 『기이기』, 『미토기』 등이 기본 기록이 되었고, 나아가 『고기(公儀)일기』, 『간메이(寬明)일기』, 『사쿠라다기(櫻田記)』,

2) 小宮木代良. 『『御實紀』引用『日記』の検討—江戸幕府記録類の解明のために』.
『日本歴史』486, 1988 참조.

『간다기(神田記)』 등 기본 기록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들 기록은 어디까지나 실기 편찬의 시점에서의 이에즈나기(家綱期) 막부 기록의 전존 형태이고, 이에즈나기 시점에 있어서 사료의 발생 실태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이에즈나기 당시에 있어서 에도 성중(城中) 정보를 기록한 기록의 발생을 생각할 때, 본론 중에서도 서술한 『덴츄오사타가키』의 존재가 주목된다. 에도 성중에서 실무상의 필요성(인사를 통지하는 것, 상벌을 알리는 것, 의례 통행로의 확보 등)에서 가이쥬(廻狀), 후레쥬(觸狀), 가키츠케(書付) 등의 형태로 각 부서, 관계자에게 전달된 의례(御目見得, 연중행사 기타), 입면, 상벌, 상사(上使) 파견 등에 관한 정보(=御沙汰)는 필요에 따라서 등록되었다. 고요베야(御用部屋, 貞享 원년 이전은 奉行所)는 이러한 정보를 발하는 장소로서도 기능하고, 그 결과로서 『덴츄오사타가키』와 비슷한 매일의 일기(『(御用部屋)日記』 등)를 작성, 축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덴츄오사타』의 ‘등록(書き留め)’으로서의 『덴츄오사타가키』는 고요베야 뿐만이 아니라 정보를 수취하여 매일 ‘등록’을 작성한 주체의 수만큼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 필두가 당시 에도 성중에 상주하고 있던 고산케(御三家)의 고쥬츠케(御城附)이고 또한 이에즈나기에 있어서는 장군 이에즈나(家綱)의 동생인 츠나시게(綱重)와 츠나요시(綱吉)의 가신들이다. 그들이 작성한 『덴츄오사타가키』(당시 그렇게 부르고 있었는가는 별도로)가 기본이 되어서, 그것에 자기 집의 기사를 합하여 『오와리기』, 『기이기』, 『미토기』, 혹은 『사쿠라다기』(櫻田記), 『간다기』(神田記)가 작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토기』 등의 매일의 기사에 자주 표기되는 ‘전중(殿中) 또는 영중(營中) 별일 없음(無別條)’은 『덴츄오사타』가 별도로 전달되지 않았던 날을 반영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매일의 『덴츄오사타』를 기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나 고산케 등의 기록을 빌릴 수 있는 제3자가 다양한 막부일기를 편찬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고요베야) 일기』 자체는 막부의 주요 인사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지만 『덴츄오사타가키』의 형식으로는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덴츄오사타가키』를 기본으로 비교적 근세전중기(寛文-享保頃)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사카에바라 타다스키(榊原忠次)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고기 일기』(公儀日記)의 ‘후문(後聞)’에서 시작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 것이나 작성자 불명의 『간메이 일기』(寛明日記), 『텐코 동감』(天享東鑑), 『쇼케이쇼메이 일기』(正慶承明日記) 혹은 실기에는 인용되지 않았지만 시마바라 마츠다이라 가(島原松平家) 본 『에도막부일기』(江戸幕府日記)나 노부오카 나이토 가(延岡内藤家) 본 『막부일기』가 있다. 나아가 『(고요베야) 일기』나 『유히츠쇼 일기』가 없는 쇼오(承應) 원년 분의 일기로서 든 『쇼오원임신일기』(承應元壬申日記)도 『덴츄오사타가키』를 공통의 근본 사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 일기』의 ‘후문(後聞)’의 기사와 기사가 있는 날 및 없는 날이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이상을 생각하면, 로쥬 등이 운영하는 부교소(奉行所, 고요베야(御用部屋))에서 나온 『덴츄오사타』가 매일의 에도성(江戸城) 정보의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그것을 부교소 자체에서 기록한 『(고요베야) 일기』도, 유히츠가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정보도 섞어서 정사(正史)로서 기록성을 의식하면서 매일 작성한 『유히츠쇼 일기』(右筆所日記)도 고산케(御三家) 오시로스키(御城附)나 기타의 에도성 내의 각 주체가 취사선택해가면서 기록한 여러 종의 일기도 모두 공통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된다. 다만 공통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자세히 비교하면 정보를 수취한 혹은 기록한 주체마다 동일한 사건을 취급하고 있어도 기재 내용이나 용어의 선택, 뉘앙스가 미묘하게 다르다고 하겠다.

3. 『유히츠쇼 일기』와 『승정원일기』

조선시대의 승정원은 공식적으로 6명의 승지와 2명의 주서로 구성된 국왕의 비서기관이다.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곳(‘掌王命出納’)으로서 승정원의 일기는 바로 국왕의 명령과 거동을 모두 기록한 자료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에도 막부의 장군의 비서기관은 무엇이고 장군의 명령을 관장하는 곳은 어디인가? 앞에서 오쿠유히츠(奥右筆)는 로쥬, 와카도시요리(若年寄)의 정무보좌관, 오모테유히츠(表右筆)는 기록 담당이라고 정의하였지만, 실제도 유히츠는 기록을 담당하는 역직(役職)임을 역직 한자의 뜻 자체에서 알 수 있다.

유히츠란 중세·근세에 두어진 무가(武家)의 비서역을 하는 문관을 말한다. 문장의 대필(代筆)이 본래의 직무였지만, 시대에 따라서 공문서나 기록의 작성 등을 행하고, 사무 관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슈히츠(執筆)라고도 부르고, 근세 이후에는 유히츠(祐筆)라고 하는 표기도 썼다.

초기의 무사들 모두가 문장의 올바른 양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할 수 없고, 문맹인 자도 드물지 않았다. 이에 무사 중에는 승려나 가신 중에서 문자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서장(書狀)이나 문서를 대필시키게 되었다. 즉 무사의 지위가 높아갈 수록 공사에 걸쳐서 문서를 낼 기회가 증대되게 되었다. 이에 전문직으로서의 유히츠가 탄생하고, 유히츠에게 문서를 작성·집필을 하게 해서, 무가(武家)는 그에 서명·화압(花押)만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서식의 모습이 인계되어 왔기 때문에 자필 문서가 일반적이었던 구케(公家)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무가가 발급한 문서의 경우, 문서 작성 그 자체가 유히츠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서명·화압이 발급자 당사자의 것이라면

자필 문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졌다. 이것을 유허즈가끼(右筆書)라고 불렀다.(특히, 足利尊氏처럼 서명·화압까지 유허즈에게 맡기는 특수한 예외도 있었다.)

또한 사무가 번잡화 하자 유허즈가 정식의 수속을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의 직권의 일환으로 문서를 작성·서명을 하여, 이것에 주군(主君)이 발급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한 예도 등장한다. 이러한 예는 원선(院宣)이나 윤지(綸旨) 등으로 일찍부터 보이고, 나중에 무가의 봉서(奉書)나 어교서(御敎書) 등에도 채용되었다.

센고쿠 다이묘(戰國大名)로서의 도쿠가와 씨에게도 유허즈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미가와(三河) 시대의 유허즈는 이에야스의 세력 확대와 천하 장악 과정에서 부교(奉行), 다이칸(代官) 등의 행정직이나 후다이 다이묘(譜代大名) 등에게 채용되었기 때문에 에도 막부 성립기에 채용되어 있었던 유허즈는 다수가 옛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 부교슈(奉行衆)의 자제(曾我尚祐와 같은 경우)나 세키가하라(関ヶ原) 전투에서 동군을 지지한 도요토미(豊臣) 정권의 유허즈슈(右筆衆, 大橋重保의 경우), 간토(関東) 지방 평정시에 이에야스에게 벼슬을 했던 옛 고호쿠쥬(後北条) 씨의 유허즈(右筆, 久保正俊의 경우) 등이었다고 생각되고 있다.

도쿠가와 장군가 뿐만 아니라 여러 다이묘(大名)에 있어서도 같은 가신(家臣) 중에서 유허즈를 등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다테바야시 번주(館林藩主)에서 장군으로 취임한 도쿠가와 츠나요시(德川綱吉)는 다테바야시 번(館林藩)으로부터 자기의 유허즈를 에도성에 들여서 유허즈 업무를 하게 하였다. 그 때문에 일반 행정 문서의 작성·관리를 하는 기존의 오모테 유허즈(表右筆)와 장군의 측근으로서 장군의 문서의 작성·관리를 하는 오쿠 유허즈(奥右筆)로 분리되게 되었다. 당초에는 두 유허즈는 대립 관계였지만, 뒤에 오모테 유허즈에서 오쿠 유허즈를 선정하는 인사가 일반화되자 양자의 공존이 이루어졌다. 오쿠 유허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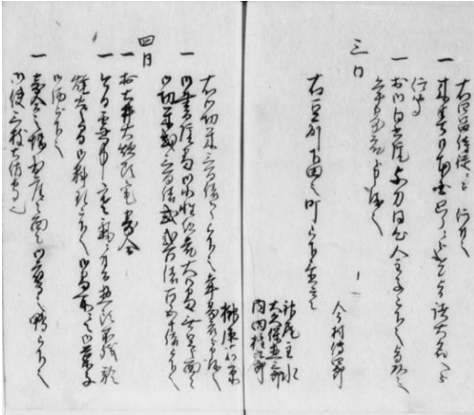
장군 이외의 타자와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장군에 의 문서 전달은 소바요닌(側用人)과 오쿠 유히츠만이 할 수 있는 직무였다. 오쿠 유히츠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문서가 로쥬 등 집정(執政)에게 회람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오쿠 유히츠를 위하여 독립된 고요베야가 설치되고, 로쥬, 와카도시요리 등으로부터 상신된 정책상의 문제를 장군의 지시에 의하여 조사,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그 때문에 대번(大藩) 다이묘, 에도성의 그늘에서 일을 하는 오오쿠의 수뇌부라도 오쿠 유히츠와의 대립을 초래하는 것은 자기의 지위를 위협하게 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그 때문에 오쿠 유히츠의 주변에는 뇌물을 둘러싸고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한편 오모테 유히츠는 대우가 오쿠 유히츠보다도 한 단계 밀리고, 기밀에는 관여하지 않고, 한모츠(判物), 슈인쥬(朱印狀) 등 일반 행정문서의 작성이나 여러 다이묘의 분권쥬(分限帳)나 하타모토(旗本), 고케닌(御家人) 등의 명부를 관리하였다.

오쿠 유히츠는 당초에는 츠나요시(綱吉) 측근 수 명이었지만, 뒤에는 확대되어 호레키(寶曆) 년간에는 17명 정도까지 확장되었다. 또한 인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오모테 유히츠(30명 전후, 뒤에는 80명 전후) 가운데에서 오쿠 유히츠로 전근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뒤에는 이 오모테 유히츠에서 오쿠 유히츠로 가는 승진 순서가 확립되었다.

오쿠 유히츠가 오모테 유히츠보다 중시되고 있었던 것은 대우면에서도 확실하였다. 교호(享保) 년간의 제도에 의하면 유히츠의 장(長)인 구미가시라(組頭)의 녹고(祿高)를 비교하면, 오모테 유히츠 구미가시라(組頭)가 역고(役高) 300석(石), 역료(役料) 150표(俵)였던 것에 대하여 오쿠 유히츠 구미가시라는 역고 400석, 역료 200표였다. 또한 일반 유히츠에 있어서도 오모테 유히츠가 150표의 장미(藏米)를 급여하였던 것에 대하여 오쿠 유히츠는 200석고(石高) 영지(領地)의 지교(知行)였다.

오쿠 유히츠는 또한 막부의 기밀문서의 관리나 작성 등을 하는 역직(役職)으로 그 지위는 낮았지만, 실제로는 막부의 수많은 역직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역직이었다. 현재의 정책 비서에 가까운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쿠 유히즈 중에는 막각(幕閣, 다이로(大老)나 로쥬)이 모이는 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허가된 자도 있었다.



〈그림2〉 에도막부일기 『유에이로쿠(柳營錄)』

그것은 여러 다이묘가 쇼군을 비롯한 막부의 여러 곳에 서장(書狀)을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오쿠 유히즈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즉 오쿠 유히즈의 재량에 따라서 그 서장이 쇼군 등에게 전달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될 정도의 역직이었던 것이다. 또한 막각(幕閣)으로부터 쇼군에게 올려진 정책상의 문제에 대해서 장군의 명령에 의하여 조사, 보고를 하는 직무도 부여되어 있다. 그 보고에 따라서 막부의 정책이 변경되고, 특정의 다이묘에 대하여 재정 혹은 인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오쿠 유히즈의 존재를 두려워했다고 할 수 있다. 오모테 유히즈도 에도막부의 직제의 하나인 셈이다. 막부의 서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오쿠 유히즈와는 상대가 되는 존재이다. 와카도시요리(若年寄)의 지배 하에 있다.

오쿠 유히즈는 이처럼 중요한 정무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

군의 명령이나 지시가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유히츠쇼 일기』는 곧 장군의 명령과 동정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유히츠쇼 일기』로서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는 『유에이로쿠』(柳營錄, 江戸幕府日記)를 들 수 있다. 『유에이로쿠』는 막부 유히츠쇼의 공용 일기를 나카가와 츠에이(中川忠英, 1753-1830)가 초록한 것이다. 소위 『에도막부 일기』(江戸幕府日記) 중의 하나이다. 기록자인 나카가와 츠에이는 나가사키 부교(長崎奉行), 간쥬부교(勘定奉行), 오메즈케(大目付) 등을 역임한 하타모토로 『청속기문』(淸俗紀聞)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그림 2>는 간에이(寬永) 9년 11월 4일자로 ‘도이 도시카츠 맥에서 모임(於土井利勝宅寄合)’이라고 되어 있다. 간에이 9년 정월, 히데타다(秀忠)의 죽음으로 다이고쇼(大御所) 히데타다와 쇼군 이에미츠(家光)에 의한 이원 정치는 막을 내렸다. 명실공히 장군으로 정권을 독점한 이에미츠는 히데타다 정권의 틀을 대폭 재편한다. 히데타다의 시대, 다이묘로부터의 탄원, 참부(參府) 시기의 결정(參勤交代 제도는 아직 생기지 않았다.) 등, 도시요리(年寄) 정무의 태반을 도시카츠(利勝)가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미츠는 특정 도시요리에게 권한이나 일이 집중되는 것을 꺼려하여, 도시요리 전원에게 의한 합의결정을 지시하게 된다. 그 때문에 여러 다이묘의 탄원 등 도시요리의 정무가 대폭 정제되어, 이에미츠 정권으로의 교대기는 파란을 포함한 채 막을 열게 되었다.

4. 각 역소(役所) 일기와 의궤(儀軌)·등록(謄錄)

의궤와 일본 에도막부에 유사한 기록류는 무엇이 있을까? 의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일본의 기록은 달라진다고 생

각되는데, 여기에서는 의궤를 의전 행사를 위한 규범으로서 정리해두고 후대에 다시 그에 따라서 행사를 하기 위하여 기록해둔 것으로 정의한다면³⁾, 에도시대의 의궤, 등록류에 버금가는 기록하는 각 역소(役所, 조선시대의各司에 해당한다)의 일기 즉 3부교(奉行)라고 일컬어지는 지사 부교(寺社奉行), 간조 부교(勘定奉行), 마치 부교(町奉行) 등의 일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사부교 일기』(寺社奉行日記), 『소사반 일기』(奏者番日記)와 『소사반 테도메』(奏者番手留)의 예를 가지고 일본 근세 각 역소의 기록 관리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⁴⁾

지사 부교는 전국의 사사(寺社)의 관리와 종교 통제를 담당한다고 앞에서 이미 서술한 바가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신사(神社), 사원(寺院) 통제를 중심으로 기타 널리 종교자의 통제 등을 행하고 또한 사사령(寺社領)의 영민(領民) 지배, 렌카시(連歌師), 악인(樂人), 온묘지(陰陽師), 고히즈미(古筆見), 고쇼기(碁將棋)를 하는 자 등의 지배도 담당하였다. 나아가 도쿠가와 쇼군 가의 영묘(靈廟)나 묘소의 관리에도 관계하고 있어서 그 담당 업무는 다양하였다. 지사 부교의 정원은 4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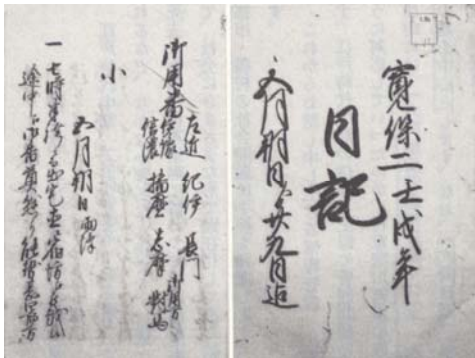
지사 부교를 담당했던 『오오카 일기』(大岡日記)⁵⁾에는 쇼군 요시무네(吉宗)에게 불려가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동안에는 지사 부교의 기록이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①당시의 지사 부교는 하나의

3) 의궤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규장각에서는 의궤를 “국가 전례의 궤범”이라는 뜻으로, 국가나 왕실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전 과정을 낱낱이 기록해 둬으로써 훗날 행사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계기록문화유산 의궤』, 규장각 한국학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center/main/main.jsp>))

4) 지사 부교와 소사반의 기록에 대해서는 大友一雄의 『江戸幕府と情報管理』(京都: 臨川書店, 2003)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5) 『오오카일기』는 쇼군 요시무네 시대의 에도 마치 부교로 유명한 오오카 에치젠노카미 다다스케(大岡越前守忠相)의 일기이다. 『大岡越前守忠相日記』(三一書房, 1972·1975년)으로 번각 간행되었다. 이 일기에는 마치 부교 때의 기록은 없고 그가 지사 부교를 담당할 시기의 기록이다.

조직으로서 계획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방법(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 ②지사 부교의 교대 등에 동반하여 기록이 인계되는 것은 없고, 역저(役邸)가 되었던 에도의 다이묘 저택(大名屋敷)에 남겨져 있다는 것, ③이 때문에 과거의 서류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사(寺社) 또는 전임 지사 부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탐색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 ④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장군 요시무네는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인 신사와 사찰에 선례를 확인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록을 작성·관리하지 않는 체제를 ‘의외(以之外)’라고 비판하였다는 것, ⑤현직의 지사 부교들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서류 등을 남기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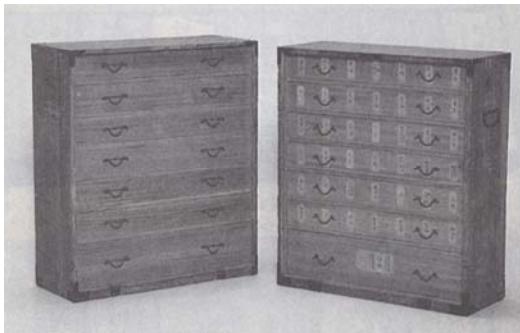


〈그림3〉 지사부교 『오오카 일기』(大岡日記)의 표지와 첫장 부분

즉 개인의 기록으로는 일기 등으로 남기고 있으나 조직적으로는 기록을 남기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쇼군 요시무네의 지시에 의하여 개인 기록에서 조직의 기록으로 기록 문화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소사반(奏者番)은 다이묘가 맡는 역직으로 성중(城中)의 의례, 다이묘나 히타모토의 알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①에도 덴쥬(江戸殿中)에서 무케(武家) 관계의 전례의 집행을

담당한 역직(조정 관계는 高家が 담당)이고, ②연시(年始)·고셋쿠(五絶句)·삭망(朔望) 등에 다이묘, 하타모토 등이 장군에게 배알할 때의 전달이나 그 준비, 또는 진공물(進貢物), 헌상물(獻上物) 등을 장군에게 피로(披露)하는 것을 관계하고, ③다이묘의 참부(參府), 휴가, 병 문안, 고산케(御三家), 고산쿄(御三卿) 이외의 다이묘의 사망에 동반한 상사(上使, 장군 파견의 使者)로 복무, ④다이묘 자제 등의 장군 알현 때에 전중(殿中) 의례를 전수하는 것 등이 주요한 일이다.



〈그림4〉 소사반 테도메 상자

소사반은 후다이 다이묘(譜代大名)가 담당하는 역직이고 사람 수가 20여 인에 이르고 있다. 로쥬, 와카도시요리, 지샤 부교(寺社奉行) 등은 모두 4인 남짓인 점에서 주목할 점이고 대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사반은 월번제(月番制)를 기본으로 하는 로쥬나 지샤 부교 등의 역직과는 달리 일번제(日番制) 근무를 하고 있다. 즉 소사반의 전중(殿中)에서의 집무는 담당 1인에 의한 당번제에 의해 유지되는데, 가중(家中)의 사람이 오시아이(押合), 유히즈로서 전중(殿中)에서 수행하지만, 당번이 지는 책임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는 소사반으로서는 그 실무를 쉽게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테도메(手留)’이다. 테

도메의 작성은 대개 표지, 속표지를 붙이고 본문은 절첩식(折帖式)으로 만든다. 그리고 하나의 정보에 대해서 테도메 1점의 비율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 수는 수천 점에 이른다. 테도메도 문서 상자와 같은 수납 용기에 내용별로 나누어서 인덱스를 붙여서 배열하는 것으로 필요한 정보를 부드럽게 추출해낼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정보를 내용 분류한 위에 장부 표면에 순번으로 기록하는 쪽이 훨씬 간단하다.

예를 들면 신규 정보나 추가,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장면형(帳面型)의 정보 관리에서는 많은 경우에 첩지나 패지 등에 의한 수정이 행해진다. 그리고 그 분량이 증가하면 전체를 바로 잡을 필요성이 생긴다. 따라서 보통 장면형은 정보의 정정, 추가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거나 정보가 추가되더라도 단순히 뒤에 보충하여 가는 경우에만 이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테도메의 방법이라면 전체를 다시 만들 필요는 없고 신규 테도메를 작성하여 박스 등의 수납 용기에 있어야 할 장소에 넣으면 끝난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정보가 발생한 경우도 해당하는 테도메만을 만들어 교체하면 되는 것이다. 즉 테도메의 이용은 바인더에 정보를 집적하는 것 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신규 정보의 추가,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 정보의 재배열을 매우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절본(折本)이라고 하는 형태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절본의 특징은 전부 펼치지 않아도 읽을 수 있는 점에 있다. 손 안에 접어서 가지고 가면 전중(殿中)에서도 눈에 띄지 않게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읽을 수 있다. 소사반이 예도 전중에 가지고 가서 의례 집행의 준비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에도 막부의 여러 레벨의 역사 기록과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를 조선시대의 역사 기록과 비교의 관점에서 정리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필자는 이전에 아카이브즈학의 관점에서 조선시대의 문서와 기록에 대해서 ①지방 관아에서의 기록의 생산과 보존 문제, ②조선왕조실록의 편찬 과정과 조선시대 제반 역사 기록의 위계에 대하여 검토한 적이 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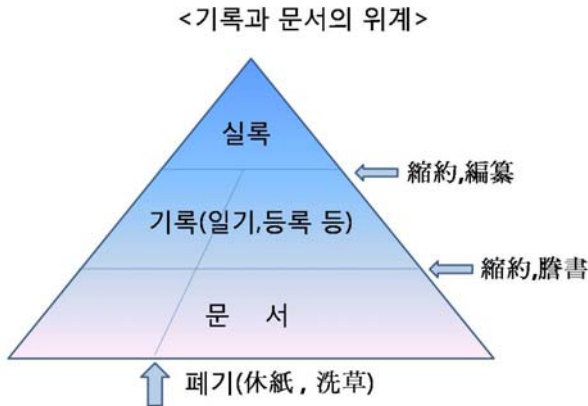
역사 기록에는 여러 가지 형태와 위계의 기록들이 있을 수가 있다. 가장 먼저 1차 자료로 주목하는 것은 원문서이다. 문서(diplomatics)의 어원이 원래 라틴어의 디플로마(diploma) 즉 교서(敎書)라는 말에서 나왔듯이, 문서에는 권리와 의무의 수수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일정 기간은 현용 문서로서 기능을 할 것이다. 조선시대의 문서에서도 관직이나 토지, 노비 등의 권리와 의무의 수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들이 다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다른 한편 기록(record)은 개인이나 기관이 어떠한 사실을 적어 두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개인적인 메모나 일기 이외에 각 기관의 일기나 등록류는 동 기관의 과거의 사실에 대한 설명 책임(accountability)을 위하여 보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중앙 정부에 보낸 장계(狀啓)를 등록한 장계등록(狀啓謄錄)이나 민이 관에 청원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관한 민장치부책(民狀置簿冊)은 국가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적어두거나, 관의 결정을 적어두어서 사후에 해

6) 김현영. 「조선시대의 문서와 기록의 위상—史草, 時政記에 대한 재검토」. 『고문서 연구』32집, 2008 (「文書と記録`そして「休紙」—朝鮮時代における文獻の傳存様相」라는 제목으로 『中近世アーカイブズの多國間比較』에 日譯하여 재수록); 김현영. 「조선시대 지방 官衙에서의 기록의 생산과 보존」. 『고문서연구』28집, 2006(「朝鮮時代地方官衙における記録の生産と保存」 『中近世アーカイブズの多國間比較』에 日譯하여 재수록)이 이에 해당한다.

당 사항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시대의 문서, 기록, 편찬물 등 여러 역사 기록의 위상을 생각해보실 수가 있다. 실록의 편찬은 『시정기』와 『승정원일기』, 승문원의 문서 등 각 관청의 등록류를 중심으로 역사 기록을 선별·축약하는 과정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문서를 옮겨 적는 것 즉 등록하는 행위는 바로 그 전 단계 즉 각 관청의 일기나 등록, 치부책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기록류 단계에서도 일차적으로 기사 선별과 축약은 이루어진다.

그러한 관점에서 문서와 기록, 실록의 위상을 그려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은 피라미트 모양이 될 것이다. 즉 1차적으로 생산된 문서군 속에서 일정한 선별과 축약의 과정을 거쳐 기록류(일기, 등록 등)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기록류들 속에서 다시 선별과 축약의 과정을 거쳐 실록으로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록은 문서와 기록의 정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⁷⁾



〈그림 5〉 조선시대의 기록과 문서의 위계

7) 이 그림은 조선시대의 문서와 기록, 그리고 이러한 문헌들의 보존과 관리라고 하는 아카이브학적 관점에서 조선시대의 문헌의 위상을 그린 것이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역사 기록의 시스템을 염두에 두면서 일본 에도 막부의 기록 관리 시스템을 검토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일본 에도막부의 역사 기록 체계에는 왕조의 실록을 편찬한다는 개념이 없었다. 실록과 비교가 되는 실기는 에도막부 말기에 기존의 사료들을 수집 망라하여 실록을 빚대어 에도시대의 정사(正史)로서 편찬되었다. 실기의 편찬자는 중국의 실록 편찬을 의식하고 마치 실록의 체제를 갖춘 것처럼 편찬하였으나 실제로는 기본 사료의 생산 과정 자체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초와 『시정기』 등을 생산하는 체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관청의 기록을 망라하여 편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즉 사관도 각 장군의 사후에 장군 당대사를 편찬하기 위한 실록청과 같은 편찬 관청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장군의 중요 기록들은 장군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오쿠 유희츠에 의하여 기록되고 관리된 『오쿠 유희츠쇼 일기』(奥右筆所日記)로 정리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군에 의하여 내려진 법령이나 결정(御沙汰)은 회람 형태로 전달되고 그것을 기록한 오사타가키와 이를 토대로 고산케, 고산케이의 에도성 근무자에 의하여 각 가에 전달되어 각 가의 역사 기록에 수록되게 되었다. 고산케이의 역사 기록과 장군의 측근 기록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오쿠 유희츠쇼 일기』는 바로 훗날 실기(實紀)를 편찬하는 기본 사료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각 역소(役所)에서도 각각의 기록 관리 체계를 가지고 기록을 정리, 보관하고 있었다. 각 역소에서는 주요한 기록들을 정리 보관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지사 부교를 지낸 『오오카 일기』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오오카 일기는 역소의 어떤 규정이 있어서 기록한 것은 아니고 사적인 기록의 성격도 띄고 있어서 일본 근세 기록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우리의 의례나 등록과 같은 역사 기록도 일본의 에도시대에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막부의 전례를 담당하고 있었던 소사반의 일기나 테도

메이다. 우리의 등록이나 의궤와 꼭 같지는 않지만 장군을 둘러싼 의례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례를 상고하고 기록을 관리하므로써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각 역소 별로 기록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조선시대의 역사 기록과 일정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생산된 1차 문서 자료나 등록 등은 축약, 보고되는 과정을 거쳐서 실록의 단계에까지 승화되는 단계를 거치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휴지(休紙)로 폐기되는 체제가 있었지만, 에도시대의 문서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폐기되지 않는, 즉 거의 모든 문서가 영구 보존되는 체제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점이 두 나라 사이의 역사 기록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國史編纂委員會 편. 『史庫址調査報告書』. 國史編纂委員會, 1986.
- 金慶洙. 『朝鮮時代の 史官研究』. 國學資料院, 1998.
- 김현영. 「조선시대 실록의 편찬과 정부기록의 보존」. 『記錄保存』6. 정부기록보존소 총무처 (1993): 7-24.
- _____. 「조선시대 지방 官衙에서의 기록의 생산과 보존」. 『고문서연구』28. 한국고문서학회 (2006): 25-37. (「朝鮮時代地方官衙における記録の生産と保存」. 『中近世アーカイブズの多國間比較』에 日譯하여 재수록)
- _____. 「조선시대의 문서와 기록의 위상: 史草, 時政記에 대한 재검토」. 『고문서연구』32. 한국고문서학회 (2008): 43-66. (「文書と記録、そして「休紙」-朝鮮時代における文獻の傳存様相」라는 제목으로 『中近世アーカイブズの多國間比較』에 日譯하여 재수록)
- 배현숙. 『朝鮮實錄研究序說』. 대구: 태일사, 2002.
- 신병주. 「承政院日記의 자료적 가치에 관한 연구」. 『奎章閣』24. 서울대학교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1): 1-20.
- _____. 「조선왕조실록의 奉安儀式과 관리」. 『韓國史研究』115. 한국사연구회 (2001): 75-105.
- _____. 「實錄形止案을 통해 본 조선왕조실록의 관리 체계」. 『國史館論叢』102. 국사편찬위원회 (2003): 21-56.
- 申奭鎬.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 보관」. 『史叢』5.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구 역사학연구회) (1960): 3-9. (『朝鮮史料解説集』 1964년에 재수록)
- 吳恒寧. 「實錄, 曆錄의 位階」. 『記錄學研究』3. 한국기록학회 (2001): 91-114.
- _____. 『韓國 史官制度 成立史研究』. 한국연구원, 2003.
- _____. 『(역주) 선조실록수정청의례』. 서울: 일지사, 2004.
- _____. 「일기청등록 해제」. 『일기청등록』.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5.
- 車勇杰. 「조선왕조실록의 편찬태도와 사관의 역사인식」. 『韓國史論』6. 국사편찬위원회 (1979): 146-185.
- 한우근. 「조선전기 실록편찬과 史官에 관한 연구」. 『震檀學報』66. 진단학회 (1988): 77-130.

- 大友一雄. 『江戸幕府と情報管理』. 京都: 臨川書店, 2003.
- _____. 「幕府役職と情報繼承--擔當交代から記録管理を考える」. 『中近世アーカイブズの多國間比較』. 国文学研究資料館(アーカイブズ系)編. 岩田書院, 2009.
- 國文學研究資料館(アーカイブズ研究系)編. 『中近世アーカイブズの多國間比較』. 岩田書院, 2009.
- 國文學研究資料館史料館 編. 『アーカイブズの科學』. 東京: 柏書房, 2003.
- 小宮木代良. 「家綱將軍初期(慶安4年4月より万治3年)における幕府記録について」. 『東京大學史料編纂所研究紀要』10. 東京大学史料編纂所 (2000): 39-58.
- 小宮木代良. 『江戸幕府の日記と儀礼史料』. 吉川弘文館, 2006.
- 笠谷和比古. 「幕府官僚制機構における伺と指令の文書類型—江戸町奉行所『撰要類集』の分析を中心として」. 『日本近世史料学研究: 史料空間論への旅立ち』. 北海道大学図書刊行会, 2000.
- 白井哲哉. 「江戸幕府の書物編纂と寛政改革」. 『日本歴史』563. 日本歴史学会 (1995): 72-84.

- 高橋一樹, 「日本中世の國家機構における文書の作成・保存・廢棄」, 『中近世アーカイブズの多國間比較』, 国文学研究資料館(アーカイブズ系)編, 岩田書院, 2009.
- 崔承熙, 「朝鮮王朝実録の編纂について」, 『史料館研究紀要』32, 国文学研究資料館史料館 (2001): 200-203.
- 深井雅海, 『江戸城-本丸御殿と幕府政治』, 東京: 中央公論新社, 2008.
- 福田千鶴, 「江戸幕府勘定所と代官所の史料空間-勘定所系「伺書」のライフサイクルをめぐって」, 『日本近世史科学研究: 史料空間論への旅立ち』, 北海道大学図書刊行会, 2000.
- 藤實久美子, 「『本朝通鑑』編修と史料収集-対朝廷・武家の場合」, 『史料館研究紀要』30, 国文学研究資料館史料館 (1999): 115-153.
- _____, 「徳川実紀の編纂について」, 『史料館研究紀要』32, 国文学研究資料館史料館 (2001): 181-199.
- 渡辺恒一, 「武家の儀礼と式書・式図-若君様御成并還御之節外向之図」, 『彦根城博物館だより』50, 彦根城博物館, 2000.

Comparative Study of Historical Records and
Document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Pre-modern Period

Kim, Hyun-Young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is article attempt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nagement of historical records and documents in the Joseon Period, compared with that of the Edo Period in Japan. *Sillok*(實錄), *Seungjeongwon-ilki*(承政院日記), *Bibyonsa-deungnok*(備邊司謄錄), and various *Eugwe*(儀軌) show the essence of the historical record and the document culture of the Joseon Period. We can suggest *Dokugawa-zikk*(德川實紀), *Yuhitssho-ikk*(右筆所日記), *Soshaban-ikk*(奏者番日記), and *Soshaban-tedome*(奏者番手留) as the records and documents of the Edo Period corresponding with those of the Joseon Period.

There are some similarities between Joseon's system of record and document management and that of the Edo Period, from the point of view that every office had its own system of recording and documenting.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system to make *Sillok* the highest level of records and documents by reporting and abridging from the records and documents that had been produced by every office, the original records and documents being

discarded as hyuji (or disused papers for recycling) in the Joseon Period. In the Edo Period, by contrast, no record or document was ever discarded, except for special cases, but was preserved permanently, in other words, a permanent preservation system of records and documents. This point is the most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two countries in their management of historical records and documents.

주제어: 역사 기록과 문서(historical records and documents), 실록 (*Sillok*), 『승정원일기』(*Seungjeongwon-ilki*), 『비변사등록』 (*Bibyonsa-deungnok*), 『도쿠가와 실기』(*Dokugawa-zikki*), 『유히츠쇼 일기』(*Yuhitssho-ikki*), 『소사반 일기』(*Soshaban-ikki*)

논문제출일: 2012. 04. 15

심사완료일: 2012. 05. 10

게재확정일: 2012. 05. 15